



내 일의 내일, 예술적으로 기술하기

제프 고인스 지음 | 윤종석 옮김 | CUP

오늘도 묻는다. 과연 이 일이 내 천직일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 질문을 사직서와 함께 가슴에 묻고 산다. 그래서일까? 자기 계발서는 날마다 새롭게 베스트셀러며, 내용의 수준보다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저작권도 상당히 고가다. 사람들은 모두가 내일을 궁급해하고 자기 일을 고민한다.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고 말하는 이는 거의 없다.

이 책은 가슴 뛰는 인생을 위한 준비, 실행, 완성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소리를 듣고 멘토를 만난 후 고통스러운 준비 기간을 통과하여 삶 가운데 실행하는 단계에서 일에 대한 기쁨과 성공, 그리고 인생을 조망하는 방법을 일러 준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통해 만들어지는 천직이 삶의 과정 중에 있다고 말한다.

선뜻 『일의 기술』이라는 제목에 손이 가질 않았다.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일은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hard worker), 노예근성을 키우며, 중독되게 하는 풍요로운 삶을 위한 부차적인 산물이나 풍성한 여가를 위한 방편 정도로 생각된다. 그런데 굳이 일에 대한 병법서 『손자병법』을 영어로 하면 'Art of War'라 칭하는 맥락에서 까지 찾아봐야 하나 싶다. '전쟁 같은 일터에서 살아남기'라면 또 모르겠다. 어떤 스펙이 더 필요해서 기술에 대한 책까지 읽어

야 하나 싶을 만큼 '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막하다. 그럼에도 단언컨대, 필수적이라 할 만큼 이 책은 현실적이다. 지금까지 출간된 일에 대한 신앙 서적 중 일명 평신도,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또한 사역자도)뿐 아니라, 일터 진입을 위해 달려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 그대에게도 적실하다.

옛말에 '큰 재주는 출해 보인다(大巧若拙)'는 말이 있다. 소명은 어느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 작품 중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다. 재능보다는 숭한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예술과 기술이 한데 어우러진 작가정신과 장인정신이 깃든 작품이 바로 명작이다.

"젊은 성직자는 성가대 간식을 준비하게 되고, 젊은 소위는 잼 단지들의 관리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허영심 강하고 실속 없는 사람들이 걸러지고 겸손하고 강인한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 <전시의 학문>, 『영광의 무게』, 루이스

작품만 그러할까? 『일의 기술』은 우리에게 소명을 통해 소망을 품는 삶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오늘은 줄

삶의 의미를 주는 세 가지,
첫째는 뭔가 해야 할 일이고,
둘째는 중요한 관계이고,
셋째는 고난에 대한 구속적 관점이다.
_p.43

해 보이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해 준다. 삶 가운데 장인정신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일러 준다.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는 비단 일뿐만 아니라 스쳐간 수많은 시간과 술한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것들을 통해 오늘의 나에게서 사소함이 걸러지고 다듬어져서 겸손하고도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고단케 하는 상황과 사람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같은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을 세밀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중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신의 한수는 우리 삶의 디테일 안에 있다. 비범한 삶이 소명이 아니라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소명임을 일깨워 준다. 인생은 매뉴얼이 아니라 한 폭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흔히 우리는 소명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소명은 이미 와 있다. ... 실행해 보면 무엇이든 명료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삶이다. _p.53~54

결국 천직이란 자신이 잘하는 일일뿐 아니라 자기 본인의 일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가 매일 주장하는 세계관의 틀로 일을, 소명을 봐야

한다. 타락한 일을 구속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여 헌신과 인내로서 완성해 나아가야 한다. 결국 천직이란 우리가 시도하거나 해 내는 무엇이 아니라 되어 가는 것이다. “천직을 찾을 때는 끝없는 신비를 찾듯이 하라”(p.56)는 말처럼 천직은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모두가 살아가고 존재하지만 실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에 나는 누구인지 물으며 시작하는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삶이 과정이라는 것이다.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오늘날의 청년들은 평생 직업을 5~6번은 바꿔야 한다. 정년도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사회와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게 무엇이든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배운 것으로 직업을 얻고, 또 공부하여 새로운 직업을 얻는 수많은 반복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실 가운데 있다. 일은 결코 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익숙해지거나 길들여져서, 또는 더 이상 심장이 두근거리지도, 설레지도 않아서 내 소명이 아닌 것 같다 여겨진다면, 당장 이 책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결코 소명은 순간의 설렘이 아니다. “행복을 얻는 최악의 길은 행복해지려 애쓰는 것”(p.43)이라는 말처럼 행복을 쫓다가 무엇이 행복인지 잊어버린 사람들, 일에 지쳐서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찾고 있는 이들, 혹은 지금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한 방의 기적을 꿈꾸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먼저 이 책을 읽어 보기를 바란다.



글 | 신효영

건국대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총신대에서 기독교 문화를 공부했다. 출판사 편집부, 미디어 강사를 거쳐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이자 <월드뷰>를 만들고 있다.